

이순신 '열선루' 보성 랜드마크 된다

군, 읍 신항동산 개발사업 추진 유적지 콘텐츠화 관광 테마 육성

이순신 장군이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라는 장계를 썼던 '열선루'가 보성 랜드마크로 우뚝선다.

보성군은 영화 '한산'이 흥행하는 등 이순신 관련 전적지 등이 관심을 얻음에 따라 역점 사업인 '보성을 신항동산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열선루 보성의 역사문화 랜드마크로 키워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성군은 지난 2018년도부터 군청 앞 '열선루' 중건사업을 비롯한 읍내 신항동산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관련 총 사업비는 118억원으로 현재 열선루를 중심으로 신항동산 주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열선루를 중심으로 ▲잔디광장 확대 ▲전망 휴게시설(테라스가든, 데크정원) ▲산책로 ▲주차장 등을 추가 설치했으며, 열선루 전망 개선과 산책로 주변 여장(성 위에 낮게 쌓은 담) 조성을 통해 보성읍성의 옛 정취를 되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열선루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순신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관광 문화 콘텐츠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성을 신항동산 종합개발사업' 조감도.

군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열선루 활용방안'에 대한 군정발전 제안 공모를 이달 말일까지 진행 중으로, 9월 중으로 심사를 거쳐 실제 관광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열선루는 이순신 장군께서 '금산전선 상유십이(今臣戰船 尙有十二)' 장계를

쓴 역사적 의미가 깊은 곳"이라면서 "열선루를 보성의 랜드마크로 키우고, 군정미를 확보했던 조양창, 명량으로 출정한 군영구미 등 보성에 주요 이순신 관련 역사와 유적지를 콘텐츠화해 하나의 관광 테마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여수시-오일허브코리아 '희망하우스 20호' 준공

여수시가 오일허브코리아(주)와 함께 저소득 복지위기가구를 위한 '희망하우스 20호'를 준공하고 최근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

이날 현판식에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오일허브코리아(주) 나용철 상무이사, 쌍봉종합사회복지관 김중진 관장, 한려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석순 위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3년 시작한 '희망하우스'는 민간 후원처와 연계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저소득 복지위기가구에 쾌적하고 안전한 새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민간협력 사업이다.

이번 한려동 희망하우스 20호 가구에는 중증 장애인과 노모를 포함한 3명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6년 전 가장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아무도 집을 돌보지 않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했다.

특히 가구원 모두 위생관념이 부족한 편지중



중세로 방마다 쓰레기를 적치해 무더운 여름 악취와 각종 벌레가 서식하는 등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었다.

오일허브코리아(주)는 이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00만원을 기탁했고 쌍봉종합사회복지관과 청원시공에서 전반적인 주택 개보수를 진행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순천시, MZ세대 공무원 역량 강화 교육 시행

순천시가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일명 주니어(Junior)급으로 분류되는 9급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3차례에 나누어 진행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민선 8기 시정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재직기간 3년 이내인 직원의 현장 실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수별 다른 내용으로 시행된 교육은 선배-동료가 강사가 되어 노하우를 공유하는 '나도강사'의 공문서 작성, 회계실무, 순천의 세계문화유산 등 6개 교육과 조직소통과 민원응대 등 4개 전문 교육으로 구성했다.

이번 교육에는 노관규 순천시장이 직접 강단에 올라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류 창조도시 추진 배경을 역설해 MZ세대 직원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순천시 관계자는 "공무원의 일하는 문화, 공부



하는 문화를 정착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과 주제로 교육을 운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명품 곡성 배 미국 수출 성과...8월 3억원 상당

GAP인증 시설·공동선별 경쟁력 25개 농가 생산량 100% 수출

곡성군 신선 농산물 중 최대 수출 품목인 명품 곡성 배가 미국 수출에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곡성군에서는 8월 초부터 원황, 황금 품종 배를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현재까지 81.6t 약 3억2500만 원 상당의 배가 미국으로 건너갔다. 군은 추석 이후 내년 2월까지 신고 품종을 수출할 계획이다.

수출용 배는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대표 정복기) 회원 농가에서 재배한다. 전체 회원 농가 중 25여 농가가 생산량의 100%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측은 안전하고 깨끗한 GAP 인증 시설을 갖추어서 효율적인 선과 시설 운영과 공동 선별을 통해 높은 품질 경쟁력과 안정된 유통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배 수출전문단지 지정 및 최우수 수출 단지 인증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바이어들에게 꾸준히 호평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이상철 곡성군수를 비롯해 곡성군 관계자들은 명품 곡성 배의 수출 현황을 살피고 지역 수출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 공동 선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현장을 찾은 이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배를 잘 생산하여 미국 수출까지 하게 된 농



이상철(오른쪽 두번째) 곡성군수와 군 관계자들이 곡성군배영농조합법인 공동 선별장을 방문,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곡성군 제공>

가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곡성 명품 배가 세계 곳곳에 뻗어나가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통한 내수 가격 안정 및 군민이 더 행복한 곡성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농가들에게 약속했다.

곡성군은 명품 배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 물류

비, 수출 농산물 포장재 지원 등 다각적인 수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 수출 요건에 맞는 해외 인증 취득, 수출 포장재 디자인 개발, 수출용 소모품 자재 구입비 지원 등 적극 행정으로 지역 수출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kwangju.co.kr

공영민 고흥군수 국비 확보 '구슬땀'

우원식 국회의원실 찾아

공영민 고흥군수가 여름휴가를 반납한 채 국회 우원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는 등 국비확보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공영민 군수는 지난 18일 우원식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정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사진)

주요 내용으로는 ▲우주발사체 사이언스 Complex 조성사업 ▲도양읍 녹동항 국가어항 불안정 확장 ▲동강 한천교차로 개선 ▲포두 세동 위험도로 개선 ▲광주-고흥(나로우주센터) 고속도로 건설 등이 포함됐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의 변화 발전을 위해 국회뿐만 아니라 중앙부처 출장인사와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요 현안사업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핵심 현안사업 추진에 완성도를 높여 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